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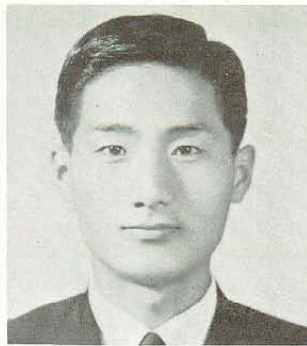
1970년 호남지방대회  
제3차 남부지방대회





### 동부지부

동부지부장에 남 영진 형제가 지지되었다. 집회 시간과 지역적으로 광대하여 불편을 주었던 새로운 동부지부 회원들은, 중앙지방부의 다른 지부와 같은 시간에 집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 6월 21일 선교부에서 제일 큰 지부가 된 동부지부장은 이 낙연, 손재정 형제를 보좌로 김 재희, 장영민 형제를 서기로 임명하였다.



### 신촌지부

신촌지부장에 임 규선 형제가 지지되었다. 친 낙서 형제의 도미로 뒤를 이어받은 임지부장은 6월 21일 취임 하면서 “나같은 어린 사람이 이러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직책이 권위의 직책이 아니라 봉사직인 것 같다.”면서 함께 봉사하자고 제의 하였다. 그는 이 해동, 배 창근 형제를 보좌와 서기에 임명 하였다.



### 부산지부

부산지부는 지난 5월 23일 저녁 “음악에의 초대”란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다. 독창, 중창, 기악, 바레, 장고 춤, 관악합주 등 한시간여의 다채로운 순서로 마련한 이 모임에는 부산지역의 회원과 그들의 이웃 5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복음과 함께 청소년에게 마음껏 재능을 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그래서 복음이 재능과 조화된 건전한 인격 형성의 필요성은 구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이르게 하였다.

## 호남지방부

지난 5월 23, 24일 호남지방부가 탄생된 후 두번째의 지방대회가 광주지부에서 있었다. ① 그간 지방부장단은 - 지방부장 이 재수(사진의 하열우측), 제 1 보좌 박 병규(하좌), 서기 김 동환(상우) - 평의원에 박 주인(전주), 민 동근(대전)형제를, 주일학교 감독에 김종택(사진의 상열중앙), 상호회 회장에 성 명경(상좌)형제를, 상호 부조회장에 민 정남자매를 임명하여 보조조직의 조직을 완료하여 ② 23일 대회를 맞기에 이르렀는데 오후 4시부터 있었던 전체역원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의무를 배우며”란 대회 주제의 선부장님의 영적인 멘션이 있었고, 계보모임, 번역 출판부의 소개 시간이 있었다.

24일 8시부터 지부장단 이상의 역원을 대상으로 한 지부장단 회의에서는 현황보고 및 건의 사항이 토의 되었으며, ③ 이 재수 지부장과 ④ 선교부장의(장단의 오른 쪽) 말씀을 들은 ⑤ 광주, 대전, 전주, 군산, 목포 등지에서 참석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처음대하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을 익히기에 바빴다. (사진은 목포지부에서 참석한 성도들) ⑥ 220여 대회 참가 성도들은 말일에 우리가 짊어진 사명감의 자각으로 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대회에 참가한 기쁨을 더할 수 있었다. 성도들은 지방부 행사에서 8명의 대신권 승진자를 지지하였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 성 명경, 정 태열, 정 현기, 김 동환 대전: 김웅제, 민동근, 이 규천 전주: 임 병욱. ⑩ 성도들은 슬로버 자매의 간증에서 - 신권을 소유한 형제의 내조자로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통해서 - 피부색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느

끼는 감사의 념이 같음에 새삼 형제애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날 때”를 폐회찬송으로 부른 성도들은 다음에는 중앙과 남부지방부의 회원들과 사귄 수 있는 기대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나눴다.

## 남부지방부

남부지방부 제10차 지방대회이며 부산, 대구, 마산 등지의 성도가 모인 3/4분기 대회가 지난 5월 30, 31일 대구지부에서 있었다. “성령을 뫄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 12:31)를 주제로 열렸던 대회는 30일 역원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전체 역원회로 시작되었다. 계보모임, 전체 지부장단회에 이어 ⑦ 저녁 7시부터는 부산 동구지부가 지부 건축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준비한 “녹색의 향연”이 베풀어졌다. 여로에 지치고 대회로 긴장된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다채로운 순서는 지부 건축을 위한 동구지부 회원들의 열의를 읽을 수 있었다.

31일 10시 “오래 기다리던 만왕”을 찬송한 160여 대회 참가 성도들은 지방부 행사에서 도길희, 김 병만 형제를 지방부 선교사(포항)로 지지하였고, 대신권 승진자로 김병지(대구), 장 재환(부산)형제를 지지하였다. ⑧ 대구성도들은 합창을 준비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봉사의 열을 더해주었으며 ⑨ 배 영천 지방부장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분이 바라시는 것에 가깝도록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니 경전을 상고하자”고 하였다. “예수께 오라”의 찬송을 순서의 마지막으로한 성도들은 8월 부산에서의 재회를 약속하며 아쉬운 정을 나눴다.